



韓國 教會圖書館의 進路

金 昌 宣
前韓國神學圖書館
協議會 事務局長

1. 序 論

다니엘 웨스터는 「만일 基督敎書籍이 이나라의 많은 무리에게 閱覽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말은 文書宣敎를 위해 기독교文獻의 讀書와 圖書館봉사에 대한 함축된 말로 풀이하고 싶다.

오늘날, 급증하는 文化發展에는 知識의 축적이 있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出版媒體는 多量의 文化藝術을 남기기 마련이다. 날로 축적되는 文獻들은 출판과 研究의 증진으로 자료의 분류, 정리, 연구…… 學習을 위하여 진정한 圖書館봉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어도 아름다운 信仰의 遺産이 있고, 특히 初期教會의 福音宣敎를 위해 「勸書運動」과 「讀書人」의 活動이 全國 方방 곳곳에 메아리쳐갔다. 필자는 지금 이 같은 초기 한국교회 「文書宣敎」를 오늘의 「圖書館敎會」로 전가되고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80년대의 韓國教會는 교회성장 百年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 진흥운동과 축제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十年間 한국교회는 大復興期로 접어들어 民族福音化의 대주제아래 각계의 선교기관을 통하여 國內外로 신앙의 불이 번져가고 있다.

한편 各敎團은 會館建立, 교세가 크고 역사가 긴 교회들은 최근 건물을 再建하고 증축하며, 탐모스 「商街敎會」들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뜨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전문가의 눈에만 비친 점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교회전경 천여평이 넘으며, 아래 위로 치솟지만 교회건물에 빛발치는 商魂에 휘말리어 갖가지 상점, 기관들이 들어서서도 教會圖書 한권 備置하는 書庫나 圖書室은 찾아 볼 수 없고, 더구나 한 건물에 「神學校와 大敎會」가 共存해도 圖書館이 없음을 안타까운 실정이다.

실사 도서관이 있어도 체구실을 못함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教會圖書館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으면서 전연 모르는 것이 이 분야 같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教會의 宣敎的 使命과 基督敎文化的 傳承 그리고 振興을 위하여, 教會宣敎一世紀를 맞이하는 敎界와 이미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역자들에게 協력을 기대하면서 小見을 펴고자 한다.

II. 教會文獻 讀書의 意義

기독교문헌은 聖書의 眞理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부속도서이다.

크리스찬의 圖書目錄은 聖書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Logos=The Word of God)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교회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은 실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聖經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教會文獻를 利用하여야 한다. 기독교서적을 讀書하는 것은 어떤 冊을 默論하고(사이비 교단의 교리서는 제외) 당신의 靈的 충족을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 문헌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成熟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生活에 임하여 世上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를 가르칠 것이다. 당신이 聖書를 이해하는 것과 信仰의 德을 쌓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建設하기 위하여 증거하며, 가르치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敎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効果있는 訓練을 안내할 것입니다.

教會文獻는 당신의 영혼은 물론 가정의 헌신을 위해서 모든 資料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의 독서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圖書가 다른 사람의 靈的 成長을 위해 必要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서선교를 위해 어떤자료가 出版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주위에는 書籍을 쌓아두고 이용하지 않는 「死藏된 圖書」가 되거나 室內를 못보이려고 備置하는 「裝飾用圖書」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요한 웨슬레(John Wesley)는 教會讀書에 대해서 좋은 격언을 이야기 해 주었다. 「讀書하는 크리스찬은 成長하는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 독서를 그칠때 그의 成長은 중지되고 만다」

미국의 명성있는 文獻學者 루이스 쇼즈(Louis Shores)는 “독서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마련하나”라는 題下에서 15분 讀書하여 성공한 讀書方法을 소개한 적이 있다. 「만일 우리가 1분간에 300단어의 速讀을 지속하고 책을 읽을 때에, 15분 동안이면 4500단어, 1주일이면 31,500, 한달에는 126,000…… 15분간 매일 1년이면 20卷의 圖書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현대의학의 거성 오슬러(William Osler)가 차지한 의학계의 값진 저술과 19세기 영국 散文의 大家인 토마스 브라운(Thomas Brown) 연구의 권위자이며, 의학교육을 위해 후배양성에 그의 일생을 바친 업적은 「15분 讀書가 이를 可能케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달리는 빠스안에서 2시간의 시달리는 시간은 있어도, 讀書하는 15분은 어디에서 할애할까! 여러분은 책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착상을 啓發하라.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안에 마음을 뜨겁게 하고 主가 너를 위해 무엇했나를 讀書하라.

여러분은 자자의 使命을 읽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여러분은 독서로 靈의 눈을 밝혀 자신의 生活을 가다듬고, 네 주위를 바로 만들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된 자신의 변화를 글로 증거하라.

Ⅲ. 圖書는 福音宣敎의 앞장

초기 교회사는 복음선교의 경로를 말해주고 있다. 「西敎之始入國也에 書籍이 爲之媒介」라 했는데, 이 뜻은 西敎, 즉 天主教의 이땅에 처음 傳來는 圖書가 안내하였다는 뜻이다. 즉 宣敎師가 이땅에 福音의 씨를 뿌리기前에 圖書는 그의 길을 닦아 놓았다고 하겠다.

예수회(Jesuits)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hieu Ricci)는 西洋의 科學(수학, 천문학)에 깊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北京에 가 있던 學者들이 17세기에 새로운 文物 즉 많은 과학책들과 권총, 망원경등 다른 산품 그리고 “하늘의 주의 진실한 교리”였던 「天主實義」와 「七克」등을 들여와 信仰의 길잡이가 되었다. 1614년에 간행된 「芝峯類說」에도 저자 李暉光(1563~1628)은 天主實義(De Deo Vera Dectrina—마테오리치저술)에 대

한 논평을 가했으며, 후에 여러 학자들이 가져 온 이 敎理書가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基督教文獻으로 소개되고 있다.

改新敎에서는 「만주의 奉天」에서 선교사 로스복사(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cIntyre) 그리고 徐相崙은 1879년부터 1882년에 이르는 동안 누가·요한 복음을 漢文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3천권(서복사투리지방)과 교정본 1천권으로 福音의 씨를 뿌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日本 요코하마(橫濱)에서 李樹庭과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 루미쓰(Rev. Henry Loomis)가 성서를 번역하여, 1885년에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와 아펜셀라(Appenzeller)가 復活節아침에 聖書를 가지고 仁川港으로 들어왔다.

「滿州와 日本」에서 한국인을 통해서 성서를 번역하여 「서울」에 들어온 것은 의미깊은 일이며, 우리말 복음서는 종합하여 1887년엔 완전 번역 신약성서(예수성교전서) 15,690여권이나 韓國人의 心中에 안겼다. 또한 1890년부터 예수교서회(현 대한기독교서회)가 결성되어 출판해낸 基督教文獻은 1927년에 이에 500여종이나 간행되고 신문잡지가 5종이나 出版되었던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를 위해 宣敎는 言語의 장벽을 뚫어 놓았다. 불란서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당시 선교의 금지와 박해 운동을 불구하고 리델神父(Riedel)는 그동안 마련했던 字典原稿를 가지고 日本으로 건너가 1880년 요코하마 E cho du Japan 인쇄소에서 처음으로 「韓佛字典」을 출판했다. 내용은 어휘사전, 문법사전 및 지명사전의 삼부로 나누워졌으며, 총 700面 어휘사전 600面, 약 3만여 단어를 표제로 내세워 불란서 語類의 철자로 표현하였으며 배열은 한국음의 서양식 알파벳순서다.

1881년은 요코하마의 天主堂 活版所에서 「韓語文法」이 나와 우리말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며, 선교사들의 어학연구에 큰 공헌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후 1889년 언더우드 著 「韓英文法」이 영어제에 최초로 나왔고 1년후에 「韓英字典」, 方達智의 羅典語字典 1891 香港등 1880년부터 1902년까지 12권의 어학사전들이 나와 선교사들의 언어연구를 위한 최초의 사전인 동시에 우리말이 외국에 소개된 시원이 되었으며 국내유일의 言語參考文獻이 되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생각할 때, 敎理書를 통하여 天主教가 들어왔고, 우리말 聖書번역으로 基督教가 전파되었으며 語學字典을 刊行하여 文化를 익히며 福音修道의 길을 넓혔다고 하겠다.

Ⅳ. 教會學習을 위한 圖書館

교회는 한개의 교육기관이다. 건물과 기구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이 목적에 계획되어 있으며, 따라서 圖書館은 教會의 復興에 매우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圖書館은 교회에 靈的 信仰의 成長을 위한 教育目的에 얼마나 그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가? 교회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眞價는 무엇인가? 현대의 교육구조에 교수법은 어떠한가?

현대에는 획일적인 사회에서 다원화사회로,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自主學習으로, 매스 미디어의 良産, 급격히 精進하는 學習媒介, 급증하는 지식의 축적, 폭발시대에 교회는 과연 기독교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學習資料를 제공하며 利用하고 있는가!

美 남침례회 主日學校 教育책임자 하우세(W.L. Howse)는 「교회에서 教育指導하는데 필요한 도서관은, 마치 대학교 혹은 神學校에서 만큼이나 그의 必要性을 느낀다」라고 했으며, 또 도서관의 봉사기능을 표현한 스나이더(John D. Snider)는 「자유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없으나, 도서관에는 만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수년간 미국에는 각교단에서 도서관진흥의 해로 설정하고, 도서관 봉사를 통한 오늘날 교회학습의 프로그램은 생동적인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중에 미 남침례회 교회도서관은 17,000개로 1970년에는 1천명의 도서관과 교회학습의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진흥책을 다짐한 바 있었다.

教會學校 교사들에게는 教案준비를 위해 성경공부에 사용할 다양한 참고물과 자료들이 동원되어 어느 성경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시해주는 聖句辭典(Concordance), 누가 누구인가(Who's who)등의 人名辭典, 의미깊은 이야기가 담긴 例話辭典, 교회의 변증과 힘증자료들, 도해적문헌, 視聽覺教材등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그들의 作品쓰기와 表現力 啓發을 위해 讀書, 研究活動을 꾸며주면서 저들에게 학문의 進歩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심리적 발달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나온 경험과 효과등을 이용하여 현명한 질문과 응답, 문제등을 자료에서 찾고 만들어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수시로 독서정보와 新刊案内, 독후감 발표회 도서전시회 生活情報 讀者와 教會, 社會등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부단한 노력으로 도서관의 애착과 흥미 관심을 일으키도록 최대의 봉사를 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서 學習을 위한 도서관,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宣敎를 위한 圖書館으로 진흥되어야 한다.

V. 文獻刊行과 基督敎出版協議會

인류의 三大發明은 印刷術의 發明과 火藥·羅針盤이라 한다. 인쇄물은 文字를 내고 文字는 受用器에 따라서 종이 위의 기록은 文獻의 資料(圖書, 古文書), 돌 혹은 기타 遺物에 새겨지면 金石學의 資料가 되며, 테이프코드, 마이크로펄스 등 음반들은 視聽覺의 資料로 大分할 수 있다.

한국 출판역사의 歷史資料는 世界最高 금속활자인 「直指心經」으로 '出版文化의 王冠을 차지하게 되었음은 西洋보다 二百年, 우리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의 후예답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한편 구텐벌그는 A.D. 1438년 인쇄술(Movable Type)을 발명하여 그의 위대한 역작, 구텐벌그 聖書(Gutenberg Bible)가 1450년에서 4,5년 걸려 완성했다. 교재는 라틴어로서 고딕스타일의 크고 아름다운 형태로 된 두줄의 필름 42행, 굵게 장식한 25매의 삽화가 포함되어 1282面 12×18½인치의 크기의 聖書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첨부할일은, 42行 聖書가, 모라비아(Moravia)의 主敎이며 교육개혁자인 코메니우스(Comenius, John Amos 1592~1670)의 著書 「世界圖鑑(Orbis Senualium Pictus, 1658)」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文獻에 「삽도」를 넣었다는 점이다. 즉 聖書에 시작되는 大文字와 찬란하게 채색된 그림은 視聽覺敎育의 效果와 製册의 아름다움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판문화에 최고의 가치를 나타낸 두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西洋에서의 基督敎 聖書요, 東洋에서는 佛敎의 기도서이다. 宗教는 저마다 기본적인 經典이 있고, 宣敎를 위해 有形(활자를 통한 책자), 無形(전파를 이용한 라디오방송, TV)의 매체(Media)들은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出版의 始初는 營業行爲가 아니었다.

한국교회 초기의 출판활동을 이야기 하자면 1889년 1월 4일 中國에서 宣敎하고 있던 올린거(Olinger)를 초빙하여 감리회의 선교사 아펜셀라(Appenzeller)는 배재학당안에 美以美라는 活版所를 두어, 1897년 2월 2일부터 첫번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 회보(Korean Christian Advocate)」를 창간하였다. 이는 1898년 4월 10일 국문판 광무협회 「대한신보」보다 1년 앞선 것이다. 또한 1890년에는 基督敎書會가 설립되어 文書宣敎를 위한 Trilingers Press라는 印刷所를 설치하여 다량의 기독교文獻을 出版해내는 한편 「讀書人」 혹은 「勸書人」이 나와 福音전파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성서공회에서는 A.M. 처그린 원작 任英彬번역 「勸書指南」이 4.6판 100면으로 나와, 성서공회에서 성서번역을 어떻게 하고 권서란 무엇인가! 권서의 직

무, 교회와의 관계가 수록된 문서선교의 지침이다. 한편 시조사에서는 1922년 화잇원저 구치훈 번역의 「勸書傳道者」가 나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速하고 가장 經濟的이고 가장 有效한 것이 勸書事業이라 하여 신앙독서운동을 전개했다.

1977년도 도서출판사향을 참고하면 12분야통계에 14,375種으로 아동도서가 1077권의 초판과 1078권의 重刊으로 도합 2155종의 최고기록을 내고 있다. 이는 中學入試폐제지이후 저들의 학습태도는 讀書로 돌아간듯 兒童들이 讀書를 많이 하게 되는데 起因된다하겠다. 아동도서는 學年보다 628種이나 겨증되었는데 우리 敎界에는 얼마만한 관심과 독서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가? 얼마전 지상에서 少年들을 위한 간행물에 제안을 한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宗敎분야의 출판사향을 보면 新刊 653種에 221권의 重刊 合하여 874권이 出版되었다. 이 중에는 10개의 佛敎출판사에서 52권이 포함되어 있다. 基督敎에는 가톨릭계의 4출판사(가톨릭, 聖바오로, 芬道,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40권이 간행되었다. 改新敎의 刊行에는 대한기독교서회 28권, 기독교문사 34권, 生命의 말씀사 45권, 보이스사 31권, 교단출판사중에는 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43권, 침례회 19권등 자못 활기를 띄우고 있다.

기독교계 출판사는 약 120개 출판사에서 刊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형식상 5부로 기능을 나눌 수 있는데 연합운영출판사(대한기독교서회), 각교당 출판사, 개인출판사, 특정인의 저작물만 출판하는 개인 출판사 그리고 신학대학과 연구기관의 기관출판사들이 있다.

매년 이와같은 출판사에서 600여종의 신간들이 나오지만 학문의 요구상, 교회의 부흥에 따른 분야별 선택과 개발에 착안하여 1백년 가까이 간행해 왔어도, 찾아보면 未刊된 몇부분이 있는 줄 안다.

출판사마다 경영의 收支와 善意의 경쟁은 좋으나 文書宣敎의 중대한 과제의 일치점에서 出版社들의 協體가 필요하며, 圖書館界와의 협력은 판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연합운영의 출판사는 實利의 타산에 앞서서 讀者를 위한 書誌의 측면과 文獻관계 즉 전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탐색하여 년중예산의 1%만이라도 出版·復刊해야 될 것이다.

M. 結 論

文獻宣敎에는 몇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비로소 제구실을 할 것이다.

그 첫째는 著作家, 둘째는 出版社, 셋째는 書店, 넷째는 圖書館, 다섯째는 讀者이다.

著者は 學的權威와 良心으로써 內容이 表現되며, 出版人의 기술과 기업양심은 圖書의 形態를 꾸미고, 讀者는 文獻의 內容과 形態를 보고 良書의 가치를 제며,

司書는 讀書, 研究를 위해 書誌作業을 하며, 文獻의 안내자로 信仰成長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圖書館敎會는 익어갈 것이다.

120개 기독교출판사는 하루 속히 협의체를 만들어 圖書館敎會를 위해 출판사에는 교계에 적합한 분류번호라도 기입(미 국회도서관같이, 또한 목록카드까지 인쇄하여 필요하면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해주며, 신학도서관협의회와 敎會圖書館協議會(속히 발족이 요망된다)는 새로운 도서의 출판예고, 목록, 서평, 연합목록,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독서정보……등 문헌서지적 작업을 위해 출판협의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神學圖書館協議會에서는 敎會圖書館의 기술적 지원과 육성위해 강습회등 서지작업에도 건실한 협력이 이루어져야겠다. 讀書週間에는 출판사와 독자, 도서관이 간격없는 대화속에 全敎界의 캠페인을 벌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全國 방방곳곳에 산재한 13,500개의 敎會는 敎育館을 개방하여 「圖書館·敎會文庫」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敎會敎育을 권장하여 폭넓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며, 多角的인 敎會事業에 「매일의 교회」가 되어야겠다. 도서관의 발전은 학문의 연구상 大學史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敎會史와 더불어 成長하였고, 전적으로 基督敎의 土壤위에서 발전되었다.

誠意있는 敎人은 敎會者에게 新刊한 권을 선사함도 아름다운 일이며, 또한 敎會者는 讀書後에 敎會圖書館에 비치하는 것도 冊을 사랑하며 도서관을 기르는 성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敎會는 宣敎의 사명에 의해 福音을 전파하여 새로운 結信者를 얻는다. 새 信者는 바른 基督敎敎育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얻고 아름다운 신앙의 깊은 체험과 敎會의 學問을 기리며 이 시대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證人을 낳는다.

참다운 기독교 敎育에는 「敎會圖書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매혹은 감이 없지 않으나 敎會圖書館 進興을 위하여 “중교개혁당시 마틴루터(Martine Luther)의 도서관설립 장려운동과 그의 제자 필립 메랑크톤(Philip Melankton)의 新圖書館”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망된다.

〔參考文獻〕

1. Alfred, Stefferud, *The Wonderful of Books*. Boston Houghton Mifflin, 1953.
2. Lavose, Newton, *Church Library Handbook*: Multonomah Press, 1972.
3. Wayne, E Todd. *Library Services in the Church*: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69.
4. *Creative Book binding*
5. 김태진, 세조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27.
6. 金昌宣, 神學研究文獻學, 서울: 景仁文化社, 1972.
7. 朴亨龍, 神學指南, 서울: 神學指南社, 23권 1호 1954.
8. 安春根, 出版社會學, 서울: 通文館, 1969.
9. 李能和, 朝鮮基督敎外交史, 서울: 新新書林, 1968.
10. 임영민, 성서와 한국근대화,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0.
11. 大韓出版文化協會, 出版文化 1978. 1.
12. 大韓出版文化協會, 出版年鑑 1977.